

“위안부”에 대한 진실 (The Truth about “Comfort Women”)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보상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상황인데, 여기에 아베 총리가 과거에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주요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치욕스러운 일이다.

- 워싱턴 포스트 사설,

2007년 3월 24일

이달 초 전시 상황에서 군이 여성들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표가 아시아 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일본은 다시 한번 진실을 농락했다. 이러한 분노는 워싱턴 정가에 까지 이어져 일본 후손이자 캘리포니아의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민주)은 일본에게 모호하지 않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는 미하원의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 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

2007년 3월 28일

일본 변호사 협회는 관련국으로 회원을 보내어 피해 보고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라 본 협회는 네 차례에 걸쳐 일본 총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과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코켄 츠시야, 전 일본 변호사 협회, 독자 사설, 아사히 신문, 2007년 4월 16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체계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기술하는 문서 기록과 세밀한 연구조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의 공허한 사과와 지속적인 책임 회피는 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완전한 사죄는 “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에 가해진 위해를 인정하고, 여성에 대해 처해진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하며, 생존자에게 진정한 참회를 전달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포함된다.

- 국제 엠네스티 미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USA)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2007년 4월 19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32년부터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아시아와 태평양의 섬지역을 전쟁기간 동안 식민지배 하면서 200,000명의 소녀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 하고 강간했다. 이들 피해자는 “위안부(comfort women)”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들은 대부분 18세 미만의 소녀들이었으며 심지어

12살의 어린 소녀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군부대 “위안소”에 갇혀 비인간적이고 치욕스러운 형태의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인 강간과—하루 최고 50회 이상—신체훼손, 질병에 시달렸다. 많은 여성들은 갇혀 지내는 동안의 폭력과 공포를 견디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전쟁 후 처형되었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생존한 여성들은 수십 년 간 치욕 속에 은둔하다 보스니아 내전 동안 조직적인 강간막사(rape camp)를 설치했다는 보도에 1990년대 초반부터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수 생존자들의 선서 증인과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에 대해 일본 정부관료들은 국제법 위반에서 기인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범죄의 정확한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간단히 말해 일본은 본 범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사죄를 하지도 않았다. 최근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죄했던 과거의 견해를 거두어 들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부인하는 운동을 펼쳐 세계사회를 놀라게 했다.

광고에 도움주신 분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워싱턴 연대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대뉴욕지구 종군위안부결의안지지연대 (Greater New York Support 121 Coalition),
대워싱턴DC 종군위안부결의안지지연대 및 121결의안 지지연합 (Greater Washington Support 121 Coalition, 121 Coalition)

추가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upport121.org